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주는 잠언의 교훈

성경말씀: 잠1:1-9, 3:1-10

1982년 9월 유학 존 에프 케네디 공항, 33년 반 만에 다시 그 공항에 감, 여러 가지로 감회가 깊다.

설교는 이미 준비하였으나 내 인생을 돌아보는 설교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함

혈혈단신, 지금은 세 딸과 두 사위 손녀, 22살, 56살, 너무나 많은 것이 변하였다. 경제 10위 유학 갈 때 공학 박사, 지금의 성경, 교회 목사 미디어 선교 사역, 이단 소리, 예배당 등 상상도 못한 삶에서 늘 상상도 못하는 일이 생긴다. 막내 에스더, 1992년 귀국 후 출생, 만 23살, 결혼을 한단다.

그것도 미국 사람과 키가 2미터, 피부색도 다르다, 한 번도 보지 못함, 상대 부모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아이의 앞날을 축복하려고 5일 반 여정의 미국행, 부모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1년 반 전부터 지금의 사위와 사귀다는 말을 들었으나 반대만 하고 아이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지 못함, 올해 들어서 아이가 확신에 차서 5월에 결혼해야겠다고 하니 발등에 불

사위의 아버지와 이메일, “어른이 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도리”, 인격적으로 매우 훌륭하고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져 있음, 걱정이 되기는 하였지만 온 가족이 협의하고 결혼시키기로 함

결혼식 전 날 저녁에 사위가 옴. 실제 인물을 보니 매우 미남, 선하게 생김, 텐젤 워싱턴 저녁에 상견례, 그리스도인의 만남, 좋은 시부모, 지난 2년 동안 거의 매주 주일 그 집 방문, 가족들과 식사, 사귄, 딸처럼 대우함, CBS 농구 해설자, 농구 게임 데리고 감, 너무 감사함

33년 동안 결혼 생활, 딸과 아들 둘, 모두 훌륭한 아이들, 부인의 말 “33년 동안 남편에게 불평 없음” 식사 후 큰 아이가 만든 두 아이의 인생 여정 비디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만든 축하 비디오

20여 명의 결혼식장, 클리브랜드 현대 예술 박물관, 온 가족이 협조, 하프, 사진, 꽃 장식, 점심 식사, 한국인 2세 목사님 주례, 양가 아버지 스피치, 그리스도인의 모임이니 모든 것이 편안하고 좋았음 에스더와 사위가 너무 기뻐함, 작은 결혼식의 큰 의미, “우리 가정에 태어난 것 하나님께 감사”

둘 다 직장 다니므로 곧바로 2시간 떨어진 자기들 도시로 내려감

그 다음 날 밤 떠나기 전 잠시 전화, “너무 걱정이 된다,” “하나님의 은혜에 너희 둘을 맡기마.”

내 처 오혜미와 처가 식구들 덕에 지금의 내가 되었음, 이모와 이모부, 외삼촌과 사촌들 언니로서 아직 시집가지 않은 둘째 유니스가 승마를 하자고 해서 1시간 말을 타고 자고 돌아옴 이번 주 설교는 가기 전에 준비하였으나 아이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는 설교로 바꾸기로 함 오늘은 내 아이들을 비롯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아이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이들인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삶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를 전달하고 싶어서 열심히 공항에서 비행기에서 준비함.

솔로몬의 잠언(잠1:1)

이 세상 최고의 지혜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화를 누리고 사악한 탐욕에 빠져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상숭배 하였지만 결국 다시 돌아와 삶을 마감하며 자기 아들을 위해 남긴 조언, 충고의 말 “내 아들이”(23번, 31장, 1:8 등), 솔로몬이 르호보암,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이 잠1:2-6 설명, 이 안에 인생의 행복 열쇠가 들어 있다.

지혜를 안다는 것은 도덕적 영적 문제에서 분별력 있게 행하는 것, 훈계: 조심하도록 타이르는 말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러므로 대개 세상의 지혜자들은 주님을 부인한다.

그런데 참 지혜를 추구하면 세상 공부는 못했어도 하나님을 안다. 그분의 바램을 안다.

그래서 바른 것을 추구한다(롬2:6-8).

세상의 지혜는 결국 사람을 패망으로 죽음으로 이끈다. 세상 대부분의 영웅호걸들 좋은 사람, 아름다운 사람들은 많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많지 않다.

여기 모인 우리는 지혜를 추구하려고 모였다. 바로 우리가 성경에 따른 지혜자

지혜는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있다. 죄인, 연약하고 부족함, 하나님만 의지함, 영원에 초점 하나님의 성육신, 단번 속죄, 초림과 재림, 천국과 지옥, 시간과 영원을 안다.

이런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나온다.

공경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데서 나온다(마10:28; 잠1:7, 9:10 등)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며 반드시 심판하신다,
불신자는 물론이고 신자도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런 의식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나는 개천에서 용이 난 케이스, 흙 수저, 나는 아직도 개룡을 믿고 흙 수저를 믿는다.

조건: 하나님의 두려움이 있다면 모두가 가능하다고 믿는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22살 어린 나이에 유학 간 이후로 말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매주 예배를 드리러 다녔다.

수업의 일정 부분을 현금으로 드리려고 노력하였다.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려고 노력하였다. 지난 20년 이상 하나님의 두려움 때문에 여러 일을 하면서 심지어 이단
소리도 들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몰아갔다. 지금은 더욱더 대적하는 정도가 강하다.
그런데 사람들의 비난과 대적이 두렵지 않다.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내 일이면 제거해
주실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관한 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
보존 사역에 관한 한 더욱더 그러하다(히13:5-6).

이런 지혜는 믿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경건서적을
읽어야 한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믿음대로 발걸음을 떼어야 한다. 그리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점점
더 지혜로워지고 반대는 점점 더 어리석게 된다.

누가복음의 종교인들: 자기 생각, 전통, 명예,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를 거부하였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

1. 명령들을 받아들인다(10:8), 2. 권고와 조언에 귀를 기울인다(12:15), 3. 입을 조심한다(29:11),
4. 지혜와 지식을 구한다(18:15), 5. 지혜와 지식을 퍼뜨린다(15:7). 6. 그 결과 혼들을 구한다
(11:30), 7. 악에서 떠난다(14:16), 8.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고 전수한다(3:35)

큰 사위의 부모, 막내딸의 부모, 다 이런 사람들이라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이 모든 지혜를 나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배웠다. 그분들은 공부는 못 했어도 가난했어도 지혜롭
다. 하나님을 안다. 그래서 그대로 전해 주려고 한다.

내 아내, 우리의 큰 아이, 큰 사위, 유니스, 에스더, 알렉스, 연서

9.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한다(1:8), 엡6:1-3
10. 이런 사람은 두려움을 가지고 남을 구한다(유23)
11. 이런 사람은 공경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히12:28).
12.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단1:8; 3:17-18, 25)

어리석은 자의 특징

1. 지혜와 혼계를 멸시한다(1:7), 2. 죄를 조롱하며 가볍게 여긴다(14:9), 3. 험뜯는 말, 중상모략
(10:18), 4. 개가 토한 것을 삼키듯 한다(26:11), 5. 땅의 일에만 관심을 둔다(17:24), 교정받는
것을 거절한다(17:10), 8. 자기를 신뢰한다(28:26). 9. 그 결과 하나님을 부정한다(시14:1),
10. 사람을 두려워한다: 그 결과 울무에 걸린다(29:25). 그리고 결국 지옥에 떨어진다.

대표적인 사례; 여호수아기의 야간, 구원받은 사람, 탐욕에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거부하
고(수6:17-18) 저주받은 물건을 자기 것으로 취하였다(수7:20-21). 신정국가 시대에 온 가족이
뜰에 맞아 죽음

알렉스를 사위로 맞기 전에 내가 준 말이 잠언 3장 1-10절이다.

지켜야 할 것: 1. 율법의 말씀, 2. 명령들(잠언 신약 포함), 3. 긍휼, 4. 진리

그 결과 그는 1. 사람 앞에서 호의, 2. 사람 앞에서 선한 명철, 3. 하나님 앞에서 호의, 4. 하나님
앞에서 선한 명철, 5. 평강, 예수님의 양아버지 요셉과 친어머니 마리아
영적인 복과 물질의 복을 받는다.

날들을 길게 하는 것은 대개 양질의 삶을 뜻한다(전11:8)

우리 아이들이 이리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리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들을 붙잡아 매야 한다(3): 주일 학교에서, 집에서, 교회 예배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1. 주님 신뢰(5), 2. 내 지혜 명철 의지 No!, 3. 모든 길에서 하나님 인정(슬픔, 기쁨, 졸업, 입학, 결혼, 이혼, 별거, 학위, 목회, 섬김, 아이들 교육, 집에서, 사회에서, 차에서, 공항에서, 교회에서, 집을 사고팔고 이사할 때, 은퇴, 죽는 것도

영적인 것

1.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않음(7절, 성경 보존 부인), 2. 주님을 두려워함, 3. 악에서 떠남, 4. 물질로 주님 공경(9): 쉬운 일이 아니지만 대개 그렇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헌금을 많이 하려고 노력, 플링도

그 결과 물질의 복, 1. 건강의 복, 2. 골수의 건강, 3. 창고가 넘침, 4. 포도즙이 넘침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결과가 좋지 않아도 감사(11-12)

사도 바울의 감사, 가시,

내게도 육체의 아픔이 있다. 대적들이 있다. 다 나를 낮추시려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결론

주님의 두려움이 있는가? 지혜로운 자

부모를 공경하는가?

모든 일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가?

물질로 주님을 섬기는가?

징계와 어려움이 와도 감사함으로 이겨내는가?

잠1:8, 3:1을 주고 싶다.